

• 연제 1 •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향

오늘날 세계적인 보건사업의 경향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사업의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돈이 소비되면서 큰 병원들이 여기 저기 서고 있지만 이것만이 보건문제의 해결점은 아닌 것인데 치료중심의 사업경향에서 아직도 탈피못한 감을 주고 있다. 이런 치료중심을 지향하고 전체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요구(Health need)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예방과 치료의 통합도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과제인 것이다.

예방이란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초 질 잡이가 되어주는 것으로서 예를들면 다리를 건너가는 경우라도 다리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있어야 아무일 없이 건너갈 수 있는거와 같이 인간이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시기들을 통합된 보건사업에 의해서 잘 지도되고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행정은 병원을 위주로 유지되고 예방사업에는 너무도 소홀히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런 여러가지 사업을 통해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질적인 사업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현재 세계적인 보건사업의 경향이며 이에 의해 대두된 것이 통합보건사업 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용인군에서 시도하고있는 다목적 사업이다. 이 사

Miss W. Visscher

◀W. H. O. 간호고문관▶

박 노 예

◀국립보건연구원훈련부교수▶

업은 지금까지 면에 있는 요원이 결핵, 가족계획, 모자보건등의 사업별로 시도하던 사업을 지역단위로 가족 단위로 한계의 면을 셋으로 나누어 한명의 간호원이 500세대 내외를 담당하여 그 지역에 알맞는 가정방문을 통한 문제의 발견과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접종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보건 교육등의 전반적인 간호사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현태의 보건간호사업의 경향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원들 자신이 가진 보건교육에 활용하여 보건교육 및 정부의 가족계획사업 및 결핵퇴치사업등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건강의 문제점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제점에 따라 보건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서 캐나다의 예를 들면 1950년대말의 캐나다는 전염병예방 1960년대에는 소아마비등이 국가의 가장 큰 건강의 문제점들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런 문제는 거의 소실되어가고 10대의 청소년 문제와 정신병등이 가장 우선순위가 빠른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캐나다의

보건계획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10대의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크리닉을 열어 상담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제점을 찾아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문제점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런 경향을 따라 각 보건계획의 수립은 물론 일선에서 일하는 보건간호원들도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선 찾아내고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어떤 내용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찾아내고 어떤 한가지의 문제를 지도하는 경우에도 지도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 즉, 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고 지도하여야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의무가 있는 것이며 모든 보건간호원은 누구나 이들을 도와 주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의무임을 각자가 알고 이행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또한 문제점이란 꼭 병원이 필요할 경우도 있으나 정신적인 안정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임으로 이런 경우 보건간호원의 지도가 더욱 요구되며, 신체적인 이상의 조기증상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보건간호원의 임무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보건간호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사업의 계획이 시급히 요구되며 이런 사업의 계획없이 새로운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간호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봄으로 다음에 그 몇가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① 보건간호사업의 감독지도를 위한 감독체계

설정이 시급히 요망된다. 현재는 도청의 감독간호원이 일선보건지소 간호원까지 감독할 수 있는 감독체계가 없고 대부분의 간호원은 일반 행정가의 감독을 받고있는 실정임으로 감독의 원래의 목적대로 사업목적의 직접달성을 위한 기술지도를 위하여 전문직 간호원에 의하여 간호사업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일원화된 감독체계가 시급히 요망된다.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있는 사업에서는 도청 감독간호원은 군보건소 책임간호원을 지도하고 군보건소 간호원은 면요원들을 감독하도록 하는 일원화된 감독체계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므로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여 감독체계가 확립되도록 정부와 각 전문인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되겠다.

② 현재의 특수사업 즉 결핵, 가족계획, 모자보건등에서 지역단위, 가족단위 통합된 사업으로 사업의 형태를 바꾸어야 되겠다.

③ 감독자들의 감독의 원칙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의 범위를 지역분담제로 하여 간호원 자신들의 지식의 광범위한 증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감독자체부터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④ 효과적인 사업의 진행과 새로운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는 보건소단위의 간호계 설치로 간호원 자신들 자치로 문제해결의 토의를 할 기회를 주기적으로 갖도록 하여야 되었다. 이렇게 지역사회중심의 간호사업을 정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선 행정적통합(Administrative integration)과 기능적통합(Functional integration) 및 중앙에서 일선에 이르기까지의 기술적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p. 85에서 계속>

문 해당시, 군(교육청)에 발송하다

// : 지부장 산업시찰 기행문 원고 도부내과로 보내다

11. 26 : 간호수첩 150부 서울지부에 신청하다

11. 28 : 75년도 대의원 총회주제(조선대학병원 박영자 회원) 2제를 본중앙회로 보내다

11. 29 : 면허갱신서류 보완자 명단(10) 받고 보완 통지하다

11. 19 : 서울대학 간호학과 기숙사 화재의연급 협조의뢰공문보내다(병월)

강원지부

11. 4 : 여성지도자 협의회 11월 정기월례회에 지부장 참석

11. 30 : 강원도 노동훈련원에 간호원 1명 추천

11. 30 : 오후 1시 춘천간호전문학교 강당에서 세미나개최. 회원 120여명 참석함

[연사 : 전 산촌 회장

[주제 : 현대간호사업의동향

[연사 : 이 병용 변호사

[주제 : 간호원과 법적문제